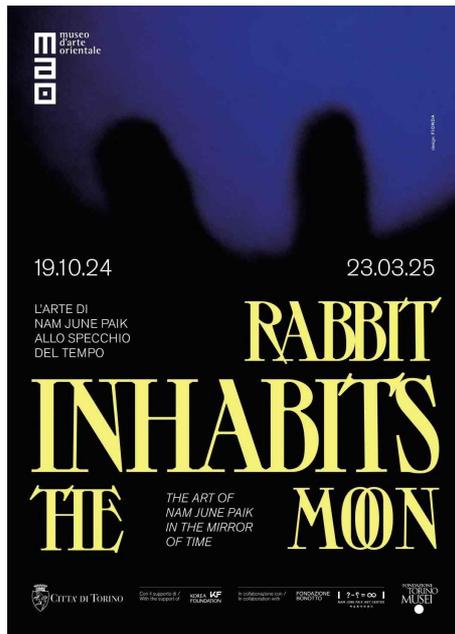


보도자료

제목	백남준아트센터-토리노 아시아 박물관 협력 전시 《달에 사는 토끼: 시간의 거울 속 백남준의 예술》 <i>Rabbit Inhabits the Moon: The Art of Nam June Paik in the Mirror of Time</i>		
문의	전시: 박상애 학예연구사 t.031-201-8542 m.010-2704-4540 취재: 이상아 학예연구사 t.031-201-8549 m.010-4739-5307		
자료	이메일에 첨부된 자료 다운로드		
배포	2024. 11. 12.	쪽수	총 9매

백남준아트센터, 토리노 아시아 박물관 협력 전시
《달에 사는 토끼: 시간의 거울 속 백남준의 예술》
Rabbit Inhabits the Moon: The Art of Nam June Paik in the Mirror of Time



- ▶ 한국-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여 백남준아트센터와 토리노 아시아 박물관의 협력으로 백남준과 그가 남긴 영향력을 재조명하는 전시를 이탈리아에서 개최
- ▶ 백남준의 주요작품과 동시대 한국 현대 예술가들의 작품을 함께 전시하며, 공통 요소로 사운드와 퍼포먼스를 선정하고 이를 통해 전통을 재해석하고 재조명

■ 전시개요

전 시 명 : 《달에 사는 토끼: 시간의 거울 속 백남준의 예술》

Rabbit Inhabits the Moon: The Art of Nam June Paik in the Mirror of Time

전시기간 : 2024. 10. 19 ~ 2025. 3. 23

전시장소 : 토리노 아시아 박물관(이탈리아, 토리노)

예술감독 : 다비데 콰드리오(Davide Quadrio), 조앤킴

참여작가 : 벨라, 글로리아 캄파네르, 박찬호, 백남준, 제시 천, 권대섭, 업체 × 류성실, 조르지아 핀카토, 유선희, 박지하, 진시우, 안규철, 디아나 롤라 포사니, 프란체스카 '하트' 마리 아노, 박선민, 안젤라 서(서현혜)

주최주관 : 토리노 아시아 박물관

협 력 : 백남준아트센터, 보노토 재단(Fondazione Bonotto)

후 원 : 한국국제교류재단

■ 전시소개

《달에 사는 토끼: 시간의 거울 속 백남준의 예술》

Rabbit Inhabits the Moon: The Art of Nam June Paik in the Mirror of Time

경기문화재단 백남준아트센터(관장 박남희)와 이탈리아 토리노 아시아 박물관이 협력 기획한 전시 《달에 사는 토끼: 시간의 거울 속 백남준의 예술 *Rabbit Inhabits the Moon: The Art of Nam June Paik in the Mirror of Time*》이 10월 19일부터 2025년 3월 23일까지 이탈리아 토리노 아시아 박물관에서 개최된다. 한국과 이탈리아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여, 양국의 문화예술 발전에 대한 활발한 대화와 성찰을 이끌어내기 위해 기획된 이번 전시는 백남준과 그가 남긴 영향력을 재조명한다. 이번 전시에는 **백남준의 주요 작품과 더불어 동시대 한국 현대예술가들의 사운드, 영상, 설치 작품이 함께 전시된다.** 이들 작품은 전통을 재해석하고 재조명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며, 10세기부터 20세기까지의 유물들과 함께 전시의 깊이를 더한다. 전시는 **지난달 18일 성공적으로 개막되었고,** 개막식에 400명 이상의 관객이 참석하여 큰 호응을 얻었다. 이탈리아 국영방송 Rai(Radio Audizione Italia)등, 현지 주요 언론들도 전시에 대해 활발히 보도했으며, 첫 주말 동안 1,000명이 넘는 관람객이 전시장을 찾아 한국과 전시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백남준아트센터는 국내외 기관들과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백남준의 예술세계와 사유의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백남준의 주요 작품과 더불어 동시대 한국 현대 예술가들의 사운드, 영상, 설치 작품들이 함께 전시된다. 이들 작품은 전통을 재해석하고 재조명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하며, 10세기부터 20세기까지의 유물들과 함께 전시의 깊이를 더한다. 파리의 국립 기메 동양 박물관, 제노바 키오소네 동양 박물관, 로마 문명 박물관 등 우수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선보이는 한국의 고지도, 회화, 도자기 등은 한국의 역사적·예술적 발전을 보여주며, 서양과 아시아 간의 문화적 교류를 강조한다.

전시 제목인 "달에 사는 토끼"는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이란, 터키 등 여러 문화권에서 발견되는 문학적 주제를 연상시킨다. 백남준이 1996년에 제작한 동명의 작품에서 나무 토끼가 텔레비전 속 달을 바라보는 모습이 이번 전시의 출발점이 되었다. 현실과 상상이 교차하며 서로를 비추는 모습을 통해 형태와 상징, 도상학적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공존하고, 시간의 흐름에 구애받지 않는 다양한 주제들이 순환하며 등장하는 구성을 보여준다.

백남준은 아시아, 유럽, 미국을 오가며 기술의 발전, 팝아트, 그리고 한국의 전통 문화와 종교적 의식을 결합한 작품을 창작했다. 그는 대중 매체, 시, 전자기기, 샤머니즘을 현대적이고 초국가적인 예술 언어로 융합해 시각 예술과 음향 예술의 경계를 허물었으며, 20세기와 21세기 미디어 문화와 예술 창작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백남준아트센터는 이러한 백남준의 예술세계와 사유를 재조명하고 확산하기 위해 국내외 기관 협력을 도모하고 있다.

사운드와 퍼포먼스는 이번 전시의 중요한 요소로, 백남준의 작품 뿐 아니라 참여 작가들의 작업에서도 그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소리, 공간, 신체를 통해 동시대 예술의 다양한 가능성을 탐구한다. 퍼포먼스 프로그램 기획은 키아라 리와 프레디 머피가 맡았고, 안젤라 서, 프란체스카 하트, 벨라, 디아나 롤라 포사니 등 전통과 현대적 형식을 결합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한국과 이탈리아의 작가들이 참여한다.

토리노 아시아 박물관(MAO) 디렉터 다비데 콰드리오와 한국의 비평가 겸 큐레이터 쇼앤 김이 공동 기획을 맡았으며, 안나 무시니와 프란체스카 필리세티가 기획을 지원했다. 마누엘라 모스카티엘로(파리 빅토르 위고 하우스 연구원), 큐리(뉴욕시립대학교 교수 겸 샤머니즘 전시실 큐레이터), 파트리치오 페테를리니(보노토 재단 이사)는 학술 자문을 맡아 전시 기획을 도왔다. 토리노 아시아 박물관이 주최하는 이번 전시는 한국의 백남준아트센터와 이탈리아 보노토 재단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했으며, 한국국제교류재단이 후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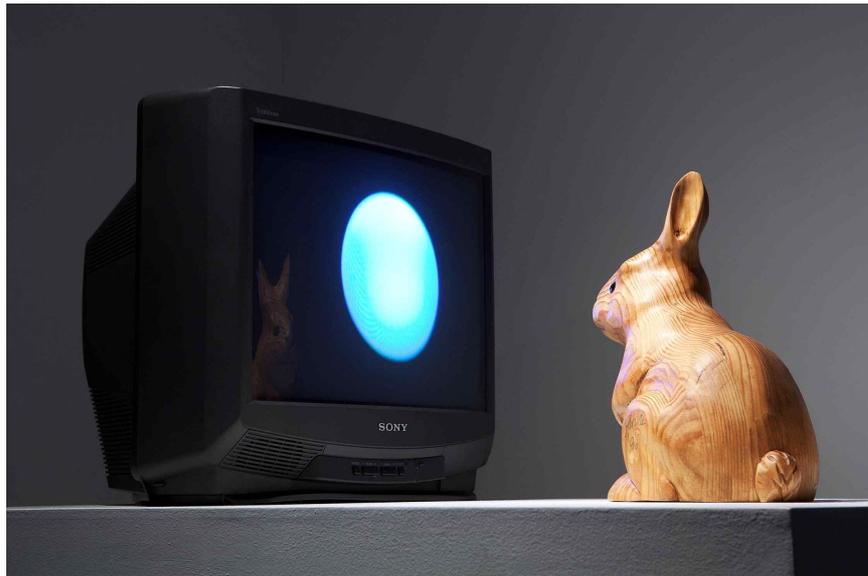
전시는 2025년 3월 23일 까지, 6개월간 열릴 예정이며, 매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될 계획이다.

■ 토리노 아시아 박물관

토리노 아시아 박물관(Museo d'Arte Orientale, Turin)은 2008년에 토리노의 역사적인 팔라초 마초니스(Palazzo Mazzonis)에 개관했다. 이탈리아와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아시아 미술 컬렉션을 소장하고 있으며, 연구를 통해 컬렉션을 확장하는 동시에 전시와 공연 프로젝트를 통해 컬렉션을 활성화하는 실험적인 시도를 지속하고 있다. 또한 아시아 박물관은 아시아 미술 작품들을 국제적 맥락에서 문화적으로 가치있게 활용하는 가능성을 탐구하는 글로벌 네트워크의 일원이다. 보존과 더불어 제작과 예술활동을 에코 시스템과 환경 친화적 가치 지향의 맥락에서 지원하는 실험적인 박물관이다.

■ 주요 작품 소개

1) 백남준, <달에 사는 토끼> (1996)



백남준, <달에 사는 토끼> (1996)

나무 토끼 조각 1개, CRT TV 모니터 1대, 1-채널 비디오, 컬러, 무성, DVD, 가변크기

백남준아트센터 소장. ©Nam June Paik Estate

달과 텔레비전을 정보 매체로 해석한 백남준의 여러 작품 중 하나인 <달에 사는 토끼>는 TV 모니터와 이를 바라보고 있는 토끼 나무 조각으로 구성된다. '옥토끼'라고도 불리는 달에 사는 토끼

이야기는 불교의 전설을 비롯해 동아시아의 여러 신화, 설화에 등장한다. 한국 동요 〈반달〉의 가사 속 “계수나무 한 나무 토끼 한 마리”도 달나라 월계수 아래에서 방아를 찧고 있다는 옥토끼를 가리킨다. 백남준의 작품에서 토끼는 자신이 살고 있는 달의 모습을 텔레비전을 통해 보고 있다. 화면의 달 모양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만든 것이다. 실제 달의 모습은 인류가 달에 착륙한 1969년 7월 20일 텔레비전 생중계를 통해 처음으로 TV 화면에 담겼으며, 이는 20세기 방송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으로 꼽힌다. 백남준은 토끼를 시청자 위치에 놓음으로써 상상 속 세상과 현실의 세상을 만나게 하는 텔레비전의 역할을 형상화했다.

2) 백남준, 〈머리를 위한 선〉 (연도미상)



백남준, 〈머리를 위한 선〉 (연도미상)
종이에 먹, 200x71cm
백남준아트센터 소장. ©Nam June Paik Estate

1961년 10월 26일 카를하인츠 슈톡하우젠과 마리 바우어마이스터가 함께 기획한 《오리기날레》에서 백남준은 〈머리를 위한 선〉을 선보였다. 그는 머리카락과 손, 넥타이 등에 붓처럼 잉크를 묻혀 바닥에 놓인 종이 위를 기어가면서 천천히 선을 그어서 신체의 미세한 움직임의 흔적들까지 남겨놓았다. 이 작품은 1960년 라 몬테 영이 쓴 퍼포먼스 스코어 〈컴포지션 1960 10번〉을 백남준 식으로 재해석한 것으로, 영의 스코어에는 “직선 하나를 긋고 그것을 따라가라”라고 되어 있다.

이듬해 9월 8일 비스바덴 시립미술관에서 있었던 플럭서스 국제 신음악 페스티벌에서 백남준은 이 작품을 다시 공연하는데, 잉크와 토마토 주스를 섞은 액체에 머리카락을 적서 약 4미터(13피트)의 종이 위를 천천히 기어갔다. 이 때의 공연 장면이 영상으로 남아있는데, 이 영상에서는 절

제된 강렬한 몸짓으로 진지하게 퍼포먼스를 하는 백남준의 모습과 함께, 이 기발한 장면에 박장 대소를 하는 관객들의 모습이 대비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다. 백남준은 이 퍼포먼스의 결과로 남은 흔적을 같은 제목의 평면 작품으로 남겨 놓았다.

3) 안규철, 〈야상곡 No.20/대위법〉 2013(2020)



안규철, 〈야상곡 No. 20/대위법〉 2013(2020)
피아노, 인쇄된 종이에 연필 드로잉 111 점
백남준아트센터 소장.

안규철의 〈야상곡 No. 20/대위법〉은 일정한 시간에 동일한 곡을 연주하는 피아니스트와 연주가 끝날 때마다 피아노의 해머 88개 중 하나를 무작위로 빼내는 조율사가 만들어내는 이중주다. 퍼포먼스는 연주자와 조율사가 실행하는 각각의 독립적인 행위로 구성된다. 피아노 건반의 음이 하나씩 줄어들 때마다 연주는 조금씩 해체되고 최종적으로 침묵을 향해 다가간다. 작품의 시간은 ‘음(音)’을 소멸시키고 우연의 소음을 만든다. 서로 독립적인 행위자들과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피아노와 연주는 행위를 하는 순간마다 다르고 전시마다 움직인다. 〈야상곡 No. 20/대위법〉은 플럭서스 예술처럼 우연적이고 불확정적이다.

벽면을 채우고 있는 악보 드로잉은 프레데리크 쇼팽의 「야상곡 20번」을 구성하는 가장 낮은 음부터 가장 높은 음까지 모두 50개의 음을 분해하여 111장으로 표기한 것이다. 작가는 이 작품을 아바나의 뒷골목 공터에 놓인 낡은 피아노를 연주하는 사람들과, 그 피아노 건반을 집요하게 갉아먹는 흰 개미떼의 이야기에서 착안하였다. “전형적이고 예측 가능한 반응과 해법에 안주하는 예술에 반대한다”고 말하는 작가는 이를 통해 미술관의 묵시적인 질서에 작은 균열을 일으켜보고자 한다.

4) 박선민, 〈버섯의 건축〉 (2019)



박선민, 〈버섯의 건축〉 (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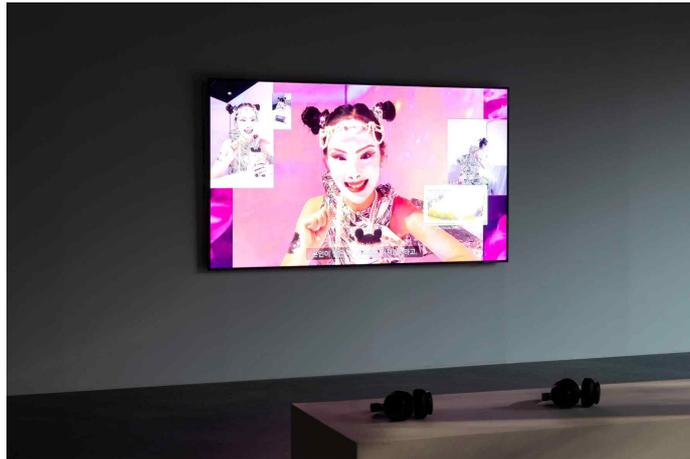
1-채널 비디오(4K), 컬러, 유성, 15 분 18 초

백남준아트센터 소장.

박선민은 현미경의 미시와 망원경의 거시를 아우르는 양안으로 통상적으로 감각되지 않는 장면들을 포착하고, 일상적 삶에 내재된 균열 속 파편들을 표현한다. 〈버섯의 건축〉은 2017년에 일년간 제주 꽃자왈 숲속 버섯을 낚은 시선과 느린 움직임으로 관찰한 영상에 건축에 대한 국내외 건축가 13명의 내레이션을 결합한 작업이다. 버섯은 유기물을 분해하며 양분을 섭취해 살아가는 균류로 숲의 생성과 소멸이라는 생태적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편으로 버섯은 기둥과 지붕이라는 건축적 구조를 압축적으로 가진 생명체이다. 대량생산의 결과로 사라지지 않은 물질이 인류와 자연에게 위협으로 다가오는 시대에 이 작품은 버섯의 소멸과 생성을 건축의 다양한 화두에 대조하거나 겹쳐 놓으며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새롭게 상상하게 한다.

작가는 “부분을 살피면서 전체를 가늠”하고자 한다. 숲속에서 버섯보다 “낮고 느린 움직임으로 큰 숲을 가늠하고 큰 세계를 상상한다.” 작가의 시선을 따라 숲속 바닥의 버섯을 관찰하면서 우리는 자연이 구축한 구조와 인류가 구축한 건축을 떠올리고 그 붕괴와 소멸에 대해 사유할 수 있다. 이렇게 〈버섯의 건축〉은 인류세를 관통하는 찰나에 필요한 시적 통찰과 감각을 보여준다.

5) 업체eobchae×류성실, 〈체리-고-라운드〉 (2019)



업체 eobchae×류성실, 〈체리-고-라운드〉 (2019)

1-채널 비디오, 컬러, 유성, 27분 9초

백남준아트센터 소장.

〈체리-고-라운드〉는 백남준아트센터의 신진 작가 발굴 프로젝트를 통해 제작된 작업이다. 의뢰를 받은 업체eobchae는 작가 류성실과 협력하여 작품을 만들었으며 류성실은 이 작품 속에서 자신의 가상 캐릭터인 '체리 장' 역할로 출연한다.

허구 속 과거, 현재, 미래의 세 시점의 서사로 구성된 〈체리-고-라운드〉에서 '체리 장'과 '발해인 1'이라는 인물의 브이로그와 2인칭 시점의 이야기가 교차된다. 첫 파트는 2019년 가상의 도시 '선전시(市)'에서 체리 장이 스스로 고안한 '브라이트닝 이론'에 따라 지구를 하얗게 만드는 비법을 담은 인터넷 방송이다. 두번째 파트는 이 방송으로 컬트적인 인기를 얻게 된 체리가 브랜드 이미지로 생성되고 소비되며 강력한 권력을 가지게 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세 번째 파트는 서기 2049년 전자정부의 감시체계가 강화된 선전1시에서 벌어지는 발해인1의 모험을 담는다.

작품은 기후와 환경의 문제, 디지털 통제와 감시, 권위주의 정치와 양극화된 경제와 노동 등 사회적 이슈들이 얽혀 있는 가상 사회를 다루면서 그 속에 소비되는 동시대 미디어의 알파하고 자기 과시적인 측면들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6) 진시우, 〈퍼포머를 위한 디렉션〉 (2014)



진시우, 〈퍼포머를 위한 디렉션〉 (2014)
컬러 디지털 C-프린트, 37x50cm
백남준아트센터 소장.

작가가 자신의 팔뚝에 퍼포머를 위한 지시문을 적은 것을 찍은 사진이다. 지시문은 다음과 같다.

- 1.어떠한 옷이든 액세서리든 상관없으니 검정색의 무언가를 입어라.
- 2.항상 관객들 사이에 있어라.
- 3.비밀스럽게 움직이고 절대 이것이 퍼포먼스임을 들키지 마라.
- 4.당신이 퍼포머인 게 밝혀지더라도 퍼포먼스가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비밀을 유지해라.
- 5.가장 편안한 방식으로 움직여라. 하지만 앞뒤로, 그리고 양 옆으로 걸어라.

퍼포머는 검은 옷을 입고 관객들 사이에 섞여 정해진 스텝을 밟으며 움직이는데 퍼포머가 작품을 공연하는 중이라는 것이 알려지지 않도록 은밀하게 이를 수행하도록 지시한다. 그러나 퍼포머에게 주어진 디렉션은 검은색의 무언가를 입고 관객 사이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이 평범한 움직임은 전시장에서 모두가 취하는 제스처에 불가하다. 이를 통해서 작가는 '작가라는 직업의 본질'에 대해 질문하는 한편 이 작업을 하면서 작가 스스로를 즐겁게 하는 요소 즉 "관객 자체가 퍼포머가 되고, 그 퍼포머를 바라보는 또 다른 관객이 존재하는" 상황을 연출한다. 이 관계는 확연히 드러나지 않아 난해하게 여겨질 수 있으나, 작품과 관객의 관계에 대한 또 다른 해석의 여지와 다양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작가의 의도를 드러낸다. 관객들 역시 작품과의 틈을 통해 스스로 무한한 해석을 부여하고 서로를 관찰하며 작품에 참여하게 된다.